

秋齋 趙秀三의 「高麗宮詞」 小考

김 영 죽*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高麗宮詞」의 諸 특징과 의미 |
| II. 宮詞의 概念과 展開樣相 | V. 맺음말 |
| III. 「高麗宮詞」의 창작 동기와 구성 | |

<국문 초록>

본고는 추재 조수삼(1762-1849)의 「高麗宮詞」에 대해 분석 고찰한 것이다. 추재는 承文院 胥吏출신의 中人으로서, 2,700여 수에 달하는 시작품을 창작하며 名實相符 조선 후기의 걸출한 시인이었다. 6차례에 걸친 燕行 경험을 모두 시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紀俗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歲時記를 짓거나, 竹枝詞를 창작하는 등에 힘을 기울였다. 「高麗宮詞」 역시 그의 이러한 기속의 特長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하지만 「高麗宮詞」는 추재의 작품 가운데서 매우 독특한 형식과 소재를 취한 것임에도, 기존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궁사」가 저작되기까지의 경위와 작품이 지니고 있는 意味를 본격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高麗宮詞」는 총 22수로 되어있으며, 小識가 첨부되어 있어 그의 창작 경위를 밝히고 있다. 소지에 의하면, 추재는 『靑湖稗史』를 읽고 要領을 얻어 竹枝詞를 본떠 작품을 짓는다고 하였다. 『淸호패사』는 그 현전여부가 아직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재의 「고려궁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데, 高麗朝와 관련된 逸話나 野史가 아닐까 여겨진다. 「고려궁사」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wenxue@hanmail.net

는 宮詞라는 시의 형식으로 인해, 조선조에 창작되었던 宮詞의 전개 양상 속에서 논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이를 그의 전체적인 작품 경향의 한 축에서 살펴보아야 그 면모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듯하다. 즉 그가 평소에 문학작품을 저작함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였는가, 어떠한 문학적 형식을 선호하였는가, 저작시기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는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추재는 「고려공사」를 통해 고려조 宮中の 雜事를 다양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에 대한 史料가 조선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추재의 「고려공사」가 일종의 史料로서의 가치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宮詞들이 묘사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 시선을 지니고 궁중의 풍속을 창작했다면, 추재의 宮詞는 화려한 궁중 풍속 이면에 있던 사회적인 문제점-예를 들면 고려조 불교의 폐단, 환관의 실상-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추재는 「奇異」나 上元竹枝詞, 「歲時記」 등 當代의 풍속세대를 素材로 하여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사적 資料를 남겼다. 「고려공사」 역시 그러한 창작 정신의 일환이었을 것이며, 이는 고려조 궁중 풍속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읽어내는데 더 없이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 한다고 보여진다.

【주제어】 高麗宮詞, 紀俗에 대한 관심, 竹枝詞, 궁중 풍속, 문화사적 資料

I. 머리말

본고는 추재 조수삼(1762-1849)의 「高麗宮詞」 22수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추재 조수삼은 2,700여수에 달하는 詩作品을 남긴 閭巷文人이다. 그는 譯官 신분이지만¹⁾ 6차례에 걸친 燕行

1) 추재 조수삼은 승문원 서리 출신이며, 그의 신분에 관해서는 줄고,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자세히 밝힌바 있다.

의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燕行詩를 창작하였으며, 평소 紀俗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이를 기록하고 시적 형상화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기왕의 연구에서 활발한 성과가 있었던 「紀異」²⁾나 「北行百絶」 등도 이러한 일환에서 나온 장편 거작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들은 그의 시세계를 조망하는데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추재가 젊은 시절, 비슷한 시기에 지은 「高麗宮詞」, 「海甸竹枝詞」, 「外夷竹枝詞」, 「歲時記」, 「聯牀小諧」 등은 그 내용과 형식은 각기 달리할지라도 창작 정신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외이죽지사」나 「세시기」, 「연상소해」에 대하여 다소의 기존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宮詞’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高麗王朝의 宮中 雜事’라는 독특한 소재를 採用했던 「고려공사」 22수는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터이다. 추재는 「고려공사」 22수에 고려조 궁실의 내밀한 풍경을 담아내었다. 특히 고려의 궁중 풍속에서만 자세히 접할 수 있는 궁중의 불교 의식과 승려의 실상, 군주의 유희와 淫行, 궁중 연회, 궁중 여인들의起居와 情懷 등이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어 고려조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되는 史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에 「고려공사」 22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宮詞의 개념과 고려 말~조선조에 이르는 공사의 전개 양상 등을 대략적으로 개관하였다. 아울러 공사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경향성을 기초로 하여 「고려공사」 22수를 각각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2) 추재의 「기이」는 간략한 小傳과 七言絶句의 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식의 문학작품이다. 간혹 小傳의 내용에 편중되어 그 소재적·내용적 측면에서만 「기이」의 작품성을 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명백한 漢詩作品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I. 宮詞의 概念과 展開樣相

宮詞는 전적으로 궁정 내부의 생활을 대상으로 한 시로서, 일반적으로 七言絶句의 형식을 취한다. 唐 王建의 「宮詞」 100수가 궁사의 鼻祖가 됨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王建 이전에 王昌齡의 「長信秋詞」, 「西宮春怨」, 「西宮秋怨」 등의 작품에서 궁중 여인들의 幽怨한 정회를 읊기도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宮詞들이 저작되기 시작한 것은 왕건 이후라 볼 수 있다. 왕건 이후,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꼽히는 것은 花蕊의 「宮詞」 100수이다. 이들에 이어 宋玉圭, 宋白, 張公庠, 周彦質 등의 궁사 작품들이 속속들이 전개되었다.³⁾

일반적으로 궁사는 궁중의 細事を 艷語로써 표현한다. 궁중 안의 다채로운 소재와 화려한 修辭를 구사하는 것도 궁사의 한 특색이라 할 수 있다.⁴⁾ 하지만 궁사가 꼭 典雅한 표현만을 주로 한 것은 아니다. 허균은 일찍이 왕건의 「궁사」가 “후세의 군자들은 비록 그 글은 신기하게 여기지만 그[王建]가 내시들과 가까웠다는 것을 더럽게 보며 辭 역시 대개는 궁중의 戲樂이라 죽히 훈계될 것이 없다.”⁵⁾고 비판하였고, 박규수 역시 宋·明의 궁사에 대해 “宮詞는 당나라 왕건에게서 발달했다. 송·명의 여러 작가들이 모두 그를 본받아 창작하여 화려하고 산뜻하며 멋지고 질탕한 작품이라 일컬어졌다. … 대개 송·명의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보았더니 실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⁶⁾라 하였다. 송·명대의 궁사가 우리나라 문인들의 궁사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허균이나 박규수와 같은 自覺은 궁사를 그 내

3) 劉路 選註, 『清宮詞選』, 북경 자금성출판사, 1985. 邱良任의 「序」 참조.

4)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작과비평사, 2008, p.116. 참조.

5) 許筠, 『惺所覆韻稿』 卷2, 「宮詞」, “…… 後之君子, 雖奇其文, 而鄙其與閹宦昵也, 且其辭率宮中戲樂, 不足訓矣……”

6) 김명호, 앞의 책, p.106.에서 재인용.

용과 표현상에 있어 수준을 한 층 끌어올리게 한 면이 있다. 궁중은 예로부터 禁忌의 장소였다. 왕건의 宮詞가 당시 많은 이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미려한 수사나 형식보다도, 그 素材가 禁忌의 ‘宮中雜事’였으며, 또한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宮詞라는 형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전적으로 궁정의 내부 생활을 소재로 하고 칠언절구의 일정한 형식을 지닌 왕건의 「宮詞」가 나오기 전까지는, 宮體詩·宮怨詩 등이 혼용되었다.⁷⁾ 지역의 토속쇄사나 풍속을 소재로 한 竹枝詞 역시 칠언절구의 형식을 지니므로 宮詞를 궁중 紀俗詩 혹은 궁중 풍속을 주제로 한 竹枝詞⁸⁾로 보는 견해도 있다. 궁사, 궁중 풍속의 죽지사, 궁사체의 시 등은 형식적 혹은 내용면에서 뚜렷이 구분 짓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궁사’는 엄연히 왕건 이하의 중국 역대 궁사들에 原流를 두고 있으므로 기속시의 분류에 한데 묶어 놓거나, 궁중 죽지사라 명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필자의 管見으로는, 대부분의 궁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궁사」라는 제목 하에 중국 궁사에서 유래한 取材 방식과 칠언절구라는 형식을 수용한 작품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궁사는 별개로 연구되어야 할 독립적 詩형식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고려말에서 조선조를 통틀어 지어진 많은 궁사들은, 이처럼 그 개념이나 취재방식이 중국의 궁사에 원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자국의 왕조와 그 풍속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작품이 모두 그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때문에 역대 궁사들을 일괄하고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궁사 연구의 필수 선행 작업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고려 말~조선

7) 궁사의 성격과 형식에 관해서는 이희목 교수의 「이조전기 관각문인들의 궁사 연구」, 『대동문화연구』 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와 「이조중기 당시풍 시인들의 궁사 연구」, 『한문교육연구』 1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하였다.

8) 이에 관해서는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수용 연구』, 보고사, 2005.에서 언급된 바 있다.

조의 대표적 작가들의 궁사 작품들을 일별해 놓은 것이다.

역대 궁사 일람표⁹⁾

	作家	제목·작품수	備考
1	李穡 (1328-1396)	鉛宮詞 (1수)	高麗王朝를 소재로 함
2	金九容 (1338-1384)	宮詞 (2수)	高麗王朝를 소재로 함
3	鄭摠 (1358-1397)	宮詞集句想奉天殿作 (1수)	
4	徐居正 (1420-1488)	宮詞 (1수)	
5	李承召 (1422-1484)	擬宮詞 (4수)	
6	成侃 (1427-1456)	宮詞四時 (4수)	
7	金時習 (1435-1493)	宮詞 三絶 (3수)	
8	成倪 (1439-1504)	宮詞 (10수)	
9	孫肇瑞 (世宗朝)	魏宮詞 (3수)	
10	李希輔 (1473-1548)	宮詞 (1수)	
11	李山海 (1539-1609)	宮詞 (4수)	
12	李純仁 (1533-1592)	宮詞 (1수)	
13	李達 (1561-1618)	宮詞 (3수)	
14	李晬光 (1563-1628)	華清宮詞 (1수), 宮詞 (5수)	
15	許楚姬 (1563-1589)	宮詞 (20수)	
16	全滉 (1563-1642)	宮詞 (1수)	

9) 고려 말~조선조의 宮詞를 작가와 연대별로 일별하는 작업은 이희목 교수의 「이조전기 관각문인들의 궁사연구」, 『대동문화연구』 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에서 한차례 진행된 바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이조전기 문인들을 위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몇몇 작가를 추가시켰으며, 序文의 有無 등을 備考란에 附記하였다.

	作家	제목·작품수	備考
17	李廷龜 (1564-1635)	再用前韻效宮詞 (2수) 清明日晚朝回效宮詞 (5수)	
18	申欽 (1566-1628)	宮詞 (6수)	
19	許筠 (1569-1618)	宮詞 (100수)	宮詞序 있음 四家宮詞跋 있음
20	權鐸 (1569-1612)	春宮詞 (2수)	
21	金尙憲 (1570-1652)	次宮詞十五首 (5수)	序文 있음
22	申翊聖 (1588-1644)	宮詞 (10수)	
23	金佺 (1597-1638)	宮詞 (4수)	
24	鄭斗卿 (1597-1673)	楚宮詞 (7수), 漢宮詞 (12수), 秦宮詞 (1수), 漢宮詞 (2수)	
25	申晷 (1628-1687)	漢宮詞 (10수)	
26	李端相 (1628-1669)	宮詞 (7수)	
27	金萬重 (1637-1692)	宮詞 (4수)	
28	洪世泰 (1653-1725)	和申內翰新春宮詞 (7수) 漢宮詞 (弱冠以前, 以後 3수씩 6수)	
29	崔昌大 (1669-1720)	詠漢宮詞用前韻 (2수)	
30	權萬 (1688-?)	漢宮詞 (1수)	
31	李獻慶 (1719-1791)	擬漢宮詞 (16수)	
32	李種徽 (1731-1797)	雞林宮詞 (2수) 平壤宮詞 (3수) 百濟宮詞 (3수)	계림궁사 : 新羅 평양궁사 : 高句麗 백제궁사 : 百濟 三國을 소재로 함
33	成大中 (1732-1812)	馬州雜詩次二王宮詞韻 (4수)	
34	趙秀三 (1762-1849)	宮詞 (1수), 高麗宮詞 (22수)	高麗宮詞 小識 있음

	作家	제목·작품수	備考
35	成海應 (1760-1839)	高麗宮詞 (17수)	高麗를 소재로 함
36	朴珪壽 (1807-1877)	鳳韶餘響 (100수)	序文 있음
37	趙冕鎬 (1803-1887)	宮詞, 元日宮詞, 宮詞體 外 다수	

고려조~조선조 문인들의 ‘宮詞’는 분량이 적지 않다. 위의 표에서는 그 가운데 학계에 알려진 주요 문인들을 위주로 통계를 낸 것이므로, 향후 연구가 진척이 된다면 궁사를 창작한 작가군들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제목에 ‘宮詞’ 혹은 ‘宮詞體’라 명시되어있는 작품을 위주로 일별하였으므로, 궁사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궁중 雜事를 소재로 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 몇몇 대표적인 궁사들은 특성들이 밝혀지기도 했다.¹⁰⁾ 허균의 「궁사」 100수는 조선조의 가장 대표적인 장편 거작이다. 그는 「궁사」의 서문을 통해 창작 의도를 밝혔는데 즉, 「궁사」를 통해 궁중의 戲樂과 관련된 소재를 주로 다루기보다는 후세에 鑑戒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당 왕건이 궁사를 지었던 의도와는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궁사의 本領이라 여겨지던 소재는 궁녀의 愁怨이었다.¹¹⁾ 하지만 시대를 넘어 계속 반복되는 이 소재는 宮詞의 상

10) 이와 관련하여 이희목 교수의 「이조전기 관각문인들의 궁사 연구」, 『대동문화연구』 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와 「이조중기 당시풍 시인들의 궁사 연구」, 『한문교육연구』 1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는 이조 전기와 중기에 저작된 宮詞들의 대략적 개관과 작품분석을 중점으로 한 연구 성과물들이다. 작가의 계층과 이들의 궁사를 연계시켜 이조 전기·중기의 궁사의 창작 양상과 경향성을 짚어내고, 향후 궁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이희목, 「이조전기 관각문인들의 궁사 연구」, 『대동문화연구』 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

당수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단점을 지닌다. 고려 말~조선조의 궁사들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띄기는 하지만, 때로는 궁중 여인의愁怨을 넘어서 소재로 주목받는 작품들이 있다.

위의 표를 참조하여 보면, 목은 이색과 척약재 김구용의 「궁사」는 매우 적은 분량이지만 가장 초기의 궁사라는 점과 또 高麗의 왕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종휘의 궁사 역시 조선의 왕실이 아닌 三國의 궁중 잡사를 다룬 것이다. 각각 「계림궁사」·「평양궁사」·「백제궁사」라 명명하여 고대 왕실의 궁중 풍속을 그려내었으니, 고려 이전의史料가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추재 조수삼의 「고려궁사」 22수와 연경재 성해응의 「고려궁사」 17수는 동일한 제목을 취하였으며 작품의 대상이 되는 왕조 또한 고려조로 동일하다. 이들 작품은 목은과 척약재의 「궁사」보다 한층 더 구체화되어있어 고려의 궁실은 물론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환재 박규수의 「鳳韶餘響」 역시 100수에 달하는 장편거작이다. 환재도 허균처럼 序文을 통해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즉, 종래의 궁사들과 달리 기교위주의 화려하고 향락적인 작품에서 탈피하여 王政에 기여하는 교훈적인 궁사를 짓겠다는 의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¹²⁾ 이는 허균의 창작 정신과 일면 통한다. 두 작품이 주제와 창작 의식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허균의 「궁사」 100수는 선조와 의인 왕후의 고사 이외에 궁중 풍속과 궁녀들의 생활상을 다룬 시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박규수의 「봉소여향」은 허균이 시도했던 궁사의 혁신을 철저히 밀고나가 시종 모범적인 군주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기도 한다.¹³⁾

간략하게나마 궁사의 개념, 고려 말~조선조 궁사의 양상들을 개관하여보았다. 선행 연구를 基底로하여 아직 주목하지 않은 작품들을 개별

12) 김명호, 앞의 책, p.108. 참조.

13) 김명호, 위의 책, p.118. 참조.

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주제별로 유형화 시키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역대 궁사의 전개 양상과 의미가 좀 더 뚜렷해 질 것이다. 이러한 일환에서 추재 조수삼의 「고려궁사」를 면밀히 考察하는 작업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Ⅲ. 「高麗宮詞」의 창작 동기와 구성

1. 「高麗宮詞」의 창작 동기

「고려궁사」는 추재 2, 30대 시절의 작품집인 『經畹叢集』에 실려 있는 시이다. 『경원총집』은 추재 친필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¹⁴⁾ 1784년(23세)이후부터 1793년(32세)까지의 저작을 모아 놓은 詩文集이다. 「고려궁사」의 구체적인 저작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0대 초반~30대 초반에 지은 작품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고려궁사」는 『경원총집』 외에 연세대 소장본인 『珍珠船襟存』에 실려 있기도 하다. 또한 규장각 필사본 『추재시고』와 연화자본 『추재집』 모두에 수록되어 있는데, 글자의出入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편차나 내용에 큰 오차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經畹叢集』所在 「고려궁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바이다.

「고려궁사」는 간략한 小識¹⁵⁾를 포함하여 총22수로 구성되어 있다. 小識에서는 추재가 「고려궁사」를 짓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전대 왕조[麗朝]에 대해 들어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청호패사』를 얻었는데, 드디어 한두 가지의 요령이 생겼다. 이에 竹枝調를 본떠 「고려궁사」 22수를 짓는다. 말이 비루하고 풍격이 낮아 周官의 채집[시경의 채집]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상자에 있는 것을 꺼내어 한가한 때에 시름을 푸는 자료

14) 『경원총집』은 2001년 계명대학교 김영진 교수에 의해 발굴된 자료이다.

15) 연화자본 『추재집』에는 「高麗宮詞」 ‘并序’로 되어 있다.

로 쓰고자 할 따름이다.¹⁶⁾

위의 예문은 「고려궁사」小識이다. 추재는 勝國, 즉 前代 王朝의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지만 『靑湖稗史』라는 책을 우연히 읽고는 竹枝調의 형식을 빌어 짓는다는 창작 경위를 밝히고 있다. 「고려궁사」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여기서 말하는 勝國이란 高麗朝를 의미한다. 또한 추재가 읽었다는 『淸호패사』의 현전 여부는 未詳이지만 ‘稗史’라 명명한 것을 보면 正史는 아닐 것이다. 또한 詩經의 채집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떠한 教化를 목적으로 한 다거나 이에 상당하는 鑑戒적 효과를 기대하고 宮詞를 저작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대 문인이었던 허균의 「宮詞序」와 비교하면 그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

예전에 당나라 왕건이 그 종인 대당수 정을 인하여 자세히 궁내의 일을 물어 백 편의 궁사를 지은 일이 있었는데, 후세의 군자들은 비록 그 글은 신기하게 여기지만 그가 내시들과 가까웠다는 것을 더럽게 보며 또 그 사 역시 대개는 궁중의 희락이라 족히 훈계될 것이 없다. 지금 나는 마침 늙은 궁인의 이야기를 들은 바 그것이 모두 임금과 왕후의 덕으로 후사의 법이 될 만한 것이니 글은 비록 졸렬하여 중초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후세 군자들의 조롱은 받지 않을 것이며 말이 족히 세상에 훈계가 되고 남을 것이다.¹⁷⁾

위의 예문을 통해 허균의 궁사 저작 동기의 一端을 확인할 수 있다. 宮詞의 鼻祖격인 唐 王建의 궁사가 대부분 궁중의 ‘戲樂’을 이야기하여

-
- 16) 趙秀三, 『經畹叢集』, 「高麗宮詞」小識, “余於勝國事未有聞知者, 偶得靑湖稗史. 遂有一二要領焉, 擬竹枝調作高麗宮詞二十二首. 詞陋格卑, 不合周官之採, 漫藏巾衍, 以資閒時遣悶云爾.”
- 17) 許筠, 『惺所覆瓿稿』卷2, 「宮詞序」, “…… 昔唐王建因宗人大璫守澄, 詳問內裏事, 作百篇宮詞, 後之君子, 雖奇其文, 而鄙其與閹宦昵也, 且其辭率宮中戲樂, 不足訓矣. 今余適聞老宮人之談, 而其皆君后之德可以爲後嗣法者, 文雖拙俚, 不逮仲初, 亦不受後君子之譏, 而言足以訓世矣. 姑載之, 以俟知者焉.”

훈계될만한 것이 없다면, 허균 자신은 ‘君后之德’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아내어 후세에 鑑戒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때문에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宮詞」 100수 가운데 상당부분이 궁중행사 혹은 제도 등을 소재로 하여 선왕의 禮度를 찬미하는 것이다. 궁중의 雜事를 표현하여 濃艷한 정을 드러낸 시도 있지만 허균이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분명 前者인 것이며, 이는 허균 當代 혹은 先代의 허다한 공사들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추재의 「고려공사」가 저작되기까지의 경위와 작품이 지니고 있는 特長을 어떠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까. ‘小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공사」가 한가할 때 시름을 푸는 ‘破寂 거리’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추재의 「고려공사」는 그의 전체적인 작품 경향의 한 축에서 살펴보아야 그 면모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듯하다. 즉 그가 평소에 문학작품을 저작함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였는가, 어떠한 문학적 형식을 선호하였는가, 저작시기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는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추재는 소위 ‘世事’를 소재로 다룬 紀俗 문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는 문인이었다. 2천 700여 편에 달하는 그의 문학작품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詩이며, 이 가운데 ‘기속시’로 분류할 수 있는 것 또한 상당분량이다. 추재 당대의 풍속세태를 素材로 삼은 시들은 소재와 내용면에서 기속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구체성을 띤 것은 ‘죽지사’라는 형식을 빌어쓴 시들이다. 추재의 작품 중에 죽지사로 명명한 것은 「海甸竹枝詞」와 「外夷竹枝詞」, 그리고 「上元竹枝詞」이다. 「고려공사」 소지에서도 ‘竹枝調’에 본떠 작품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이도 죽지사의 형식을 빌어쓴 것이다. 이처럼 죽지조의 형식으로 「고려공사」를 저작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궁중 죽지사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죽지사 역시 칠언절구 형식이며 宮詞 역시 당의 왕건 이래 칠언절구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하지만 그 소재의

범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죽지사는 지역의 풍물 즉, 人事 혹은 토속쇄사 등을 소재로 한다. 예를 들면 추재가 작품 가운데 「해전죽지사」·「외이죽지사」·「상원죽지사」는 각각 燕行時 견문했던 海甸지역¹⁸⁾의 풍정, 『方輿勝略』의 「外夷列傳」에 실린 異域의 풍물, 대보름 풍속을 그려낸 시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 토속쇄사’라는 소재로 포괄할 수 있지만,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궁사의 경우에는 칠언절구라는 형식 혹은 풍물이나 풍속을 소재로 형상화 한 시작품이라는 면에서 죽지사와 그 궤를 함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宮中風俗’이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추재는 자신의 각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각종 죽지사로 형상화 시켰으며, 또한 ‘궁중 풍속’만으로 오로지 그 대상으로 삼는 宮詞의 형식으로 고려조의 궁중 잡사를 실어 놓았으리라 여겨진다. 즉,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紀俗에 관한 관심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추재의 창작의도가 허균이나 박규수처럼 교화나 감계에 치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기속의 관심과 기록정신이 『청호패사』라는 책을 통해 촉발되었고, 이것이 「고려궁사」의 창작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허균이나 박규수처럼 궁사 창작의 의도를 후세의 訓化나 鑑戒에 둔 문인들도 있지만, 추재처럼 철저한 기록정신에 의해 창작에 임한 인물도 있다. 이는 작가의 계층 혹은 志趣에 따라 궁사의 성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풍속을 기록하여 시로써 형상화 한 작품은 그 문예적 가치와 더불어 ‘정보전달’의 기능까지 내포할 수 있다. 추재의 「고려궁사」가 궁녀의 愁怨을 묘사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고, 고려조의 불교 의식, 세속화된 승려의 실상, 환관의 폐단, 왕실의 조혼풍습, 군주 탄생의 설화와 장례, 심지어 군주의 男寵까지 실로 다양한 소재를 섭렵했던 것은 이처럼

18) 燕京 都城 서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圓明園·昆明池 등의 名勝地가 많은 곳이다.

그의 기속에 관한 관심의 연장선이라 보여진다.

2. 「高麗宮詞」의 내용과 구성

「고려궁사」는 총 22수로 되어 있다. 22수의 내용들은 각각 개별적인 것이며 연작시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완전한 序文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간략한 小識가 첨부되어 있으며, 허균의 「궁사」처럼 自註를 달아 시의 소재·내용을 분류한 형태는 아니다.

추재의 「고려궁사」에서는 기왕의 宮詞류에서 형상화한 군주와 궁중 여인들의 행락, 여인들의 愁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재 당대의 왕조가 아닌 고려조 궁중의 풍속을 담아내는 소재들을 골고루 취했다. 특히 불교 행사나 승려의 모습 등은 고려왕조 고유의 시대상을 담아내는 독특한 소재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고려궁사」 22수의 소재와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다.

	소재와 내용	주제 분류
其一	7일간 계속된 燃燈會와 세속적인 승려의 모습	불교, 승려
其二	고려 왕실의 조흔 풍습 묘사	궁중 여인의 기거
其三	공주의 佛事, 사찰 행차	궁중 여인의 기거
其四	고려 혜종의 탄생 설화	
其五	군주의 佛事와, 사찰 거등	불교, 군주
其六	화려한 사찰의 묘사, 사치스러운 승려의 모습	불교, 승려
其七	後宮의 悲怨	궁중 여인의 기거
其八	군주의 범회 참석, 예의 없는 승려의 모습	불교, 군주, 승려
其九	妃嬪의 낙타교 행차와, 宦官의 실상	환관
其十	개경 後西江[예성강]의 변화한 무역항, 白堊의 실상	환관
其十一	궁중의 정원의 한가로운 풍경	궁중 풍경

	소재와 내용	주제 분류
其十二	궁중 비원과 상림원의 한가로운 풍경	궁중 풍경
其十三	군주의 사냥 유희	군주의 유희
其十四	鍾山閣의 풍경 備考 : 鍾山閣은 書閣인듯 하나 확실치 않음	궁중 풍경
其十五	군주의 鞦韆戲	군주의 유희
其十六	궁중 정원의 한가로운 풍경	궁중 풍경
其十七	궁중 연회에서의 黃昌舞와 산대놀이 묘사	군주의 유희
其十八	정월 대보름 궁녀들의 유희	궁중 여인
其十九	초파일 연등회의 화려한 풍경	불교
其二十	군주의 장례와 적막한 궁궐의 모습을 묘사	군주의 죽음
其二十一	군주의 寢所와 太醫의 奇方 처방을 묘사	군주의 유희
其二十二	군주의 男寵에 관한 묘사	군주의 유희

위의 표는 거칠게나마 「고려궁사」 22수의 소재와 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군주를 중심으로 한 遊敍的 성격의 소재와 불교 행사에 관한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궁중 여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들 가운데, 妃嬪이나 宮女가 왕의 총애를 두고 悲怨을 드러내는 것은 한 수에 그친다. 이는 궁녀들의 愁怨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取材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군주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宮詞와 그 궤를 달리하는데, 군주의 政事나 治化와 관련되어 권위와 위엄을 형상화하기 보다는 궁궐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화려한 행락의 주체로서 그려졌다. 추재는 宮中事를 다루면서 군주의 ‘至尊’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좀더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22수 모두 개별적인 소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매 詩마다 세심한 분석이 요구되며, 그러는 가운데 추재만의 ‘궁사’가 가지는 특질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개별적인 분석은 본고의 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IV. 「高麗宮詞」의 諸 특징과 의미

1. 宮中の 佛敎 儀式과 실상

추재의 「고려궁사」 22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묘사된 대상은 바로 고려의 ‘불교’와 관련한 것들이다. 이는 고려조의 국교와도 같았던 불교가 궁중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행사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연유가 크다.太祖가 즉위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 불교 옹호에 매우 힘을 쏟았고 이러한 일환으로 다량의 사탑 건축과 불사를 크게 일으키며 八關會, 燃燈會 등의 불교행사는 명실상부 국가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고려조를 배경으로 하여 宮詞를 창작할 경우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추재의 「고려궁사」 전반에서 불교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는데, 고려 왕조와 불교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추재가 작품을 통해 해당 왕조의 궁중 풍속을 충실하게 담아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군주가 法會에 참석하는 상황, 사월 초파일의 풍경, 승려의 모습 등을 그려내었는데, 行間에서 이들을 통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추재의 시선을 충분히 감지하게 된다.

[其一]

七宵燈火遶迴廊	칠일 밤 동안 등불은 회랑을 둘러싸고
金佛層層御座傍	금불상 층층이 어좌의 옆에 있네
催喚神師扶醉出	神師를 재촉해 불러 취한 것을 부축해 나오니
袈裟猶濕內家香	袈裟는 아직도 內家の 향에 젖어 있네

[其十九]

八夜張燈慶佛生	초파일 밤 연등 펼쳐 석가탄생 축하하니
珍珠舍利滿宮明	진주 사리가 온 궁을 밝게 한다
御琴演盡靈山會	가야금으로 靈山會相 연주 다하자

細嚼槐糕作隊行 느티떡[槐糕] 살살 씹으며 떼를 지어 다니네

[其一]은 燃燈會의 모습이며, [其十九]도 사월 초파일 연등행사를 형상화 한 것이다. 연등회나 초파일 행사 등은 대표적인 불교행사이자 국가 행사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태조가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로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¹⁹⁾라 하며 후대의 왕들도 이를 항례적인 행사로 선행할 것을 당부하였던 바이다. 고려조에서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던 상원연등회와 초파일 연등회 외에도 특별한 날에 연등회를 열었다. 사찰의 창건이나 국왕의 공덕을 위한 연등회가 그것이다.²⁰⁾ 『고려사』 권8 世家의 文宗조를 참조하여 보면, 문종은 홍왕사에서 5주에 걸친 연등대회를 특별히 열었는데,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燈山과 燈樹를 만들어 마치 밤과 낮이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밝았다고 한다. [其一]과 [其十九]에서 묘사된 7일 밤 동안이나 이어진 등불이나 초파일 밤에 연등을 펼치고 진주와 사리로 온 궁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당시의 화려한 연등회를 재현한 것이다. 궁에서 王과 妃嬪들은 觀燈 놀이를 하고 잔치를 베풀어 君臣간의 친목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환하게 밝혀진 개경의 밤거리에서 백성들도 각자의 發願을 했음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연등 공덕을 강조하는 뜻에서 마련한 이 행사는 적지 않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행사 준비의 비용면에서도 그러했으며, 발원의場이 아닌 그저 화려한 등불을 즐기는 호사스런 잔치가 되어버린 것이다.²¹⁾

고려 왕조에서 불교에 대해 베풀어졌던 好意와 신뢰는 당시의 승려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다. 연등회를 개최하면 사찰에 진귀

19) 『高麗史』, 卷2, 太祖 26년 「훈요십조」.

20) 하일식 편,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p.83. 참조.

21)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p.225. 참조.

한 물건들이 기증되고, 승려들 또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²²⁾ 이러한 史實들은 『高麗史』의 도처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의 승려들은 재화를 모으는데 급급하거나, 여염집을 출입하며 酒色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娶妻를 하기도 하였는데, [其一]의 3, 4구는 바로 그러한 승려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1, 2구에서 휘황찬란한 연등회를 풍경을 제시하는 반면, 추재는 3, 4구에서 술 취한 승려가 여인의 향이 배어 있는 袈裟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려 戲化시키고 있다.

한편, [其十九]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눈앞에 펼친 듯 그려내었다. 특히, 가야금으로 불교 음악을 연주한 후 모두가 떡을 나누어 먹는 3, 4구의 장면은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초파일 풍속의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참 흥미로운 점이다. 槐糕라는 것은 ‘느티떡’으로 추정된다. 느티나무를 뜻하는 ‘柟’은 회화나무를 뜻하는 ‘槐’와 혼용해서 쓰기도 하였다. 李瀼의 『星湖僊說』 「萬物門」에 “…… 그리고 괴엽이란 것도 꽃 피는 괴화(槐花)가 아니며 느티나무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느티나무를 가리켜 괴화나무라고 하는 것도 유래된 곳이 있는 듯하다.[槐非花黃之槐也, 我國之柟爲槐亦似有自].”라는 구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의 4구에서 언급된 槐糕는 바로 느티떡을 의미한다 해도 무리가 없다. 초파일에 느티떡을 먹는 풍습은 각종 歲時記類에 기재되어 있는데, 유만공(1793-1869)의 『歲時風謠』에는 “느릅나무 연한 잎은 떡을 하기에 알맞다.[黃榆芽葉軟宜糕]”라 하였고, 최영년(1856-1935)의 『海東竹枝』에는 “옛 풍속에 초파일이면 느티떡을 찐다.[舊俗八日蒸槐餅]”라 되어있다. 예로부터 느릅나무나 느티나무의 연한 잎을 섞어 초파일에 떡을 찌서 먹었는데, 주로 느티나무의 어린잎을 사용하여 떡을 찌기 때문에 ‘느티떡’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榆葉餅’ 혹은 ‘槐餅’, ‘槐糕’ 등이 모두 느티떡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조선시대에 지어진 ‘歲時記’류에 실려 있던 ‘초파일’의 풍습이 고려조에도

22) 『高麗史』, 卷34, 世家, 충숙왕 참조.

확실히 행해졌던 오래된 것임을 추재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其五]

金剛一萬二千峯	금강산 일만 이천 봉
峯峯寺刹白雲封	봉우리마다 사찰에 흰 구름 많구나
明日降香裝袿褲	내일 降香하고 버선바지 꾸미리니
車如流水馬如龍	수레는 流水와 같고 말은 龍과 같구나

[其六]

水銀簷磚水銀闌	수은 처마와 벽돌, 수은으로 만든 문
銀 ²³⁾ 像中浮無所依	은불상은 등실 떠 의지한 곳 없네
僧劫誰知都解脫	승려가 억겁을 지나면 모두 해탈한다고 누가 알겠는가
燒香夜夜換羅衣	향 사르고 밤마다 비단 옷 갈아입네

[其八]

唐樣雙蛾疊指長	당나라 문양의 눈썹, 긴 손가락 포개고
尖蓮爭似燕飛忙	뽕족한 연꽃은 제비가 바빠 날듯
君王聽罷鳩摩講	군주는 불경 듣기를 파하였는데
相服沙門臥對牀	속옷 입은 승려는 침상에 마주하고 누웠네

위에서 제시한 세 수의 시를 통해서 당시 고려의 불교가 어느 정도 興盛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其五]에서는 “봉우리마다 사찰이다.”이라 하여 당시의 왕조가 사찰의 건립과 부흥에 얼마나 공력을 들였는지를 보여준다. 3, 4구에서는 왕이 사찰에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其六]에서는 수은으로 도금한 사찰의 화려한 경관, 거대한 은불상을 통해 당시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 4구에서는 추재가 수행과 정진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俗化된 승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두고 있는데, 이는 [其八]에서도 드러난다. [其八]의 1, 2구는 불상의 모습을 정교하게 그려낸 것이다. 3, 4구는 高僧의 법회를 듣는 군주 옆에서,

23) 趙秀三, 『珍珠船雜存』에는 ‘銅’으로 되어 있다.

예를 차리지 않는 승려를 묘사하였다. 鳩摩羅什은 天竺國의 高僧으로, 後秦때 처음으로 관중으로 들어갔는데 姚興이 國師의 예로 대우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高僧의 법회에 군주가 참석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어서 법회 하는 동안 승려가 법회 장소의 한켠에서 침상에 속옷 차림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장면이 전개되는데, 이를 통해 고려조의 庇護를 받은 승려들의 실상을 알 수 있다. [其六]과 [其八]의 3, 4구는 당시 폐단을 안고 있던 승려들에 대한 추재의 비판적 어조를 느끼게 한다. 당시 불교 폐단의 실상은 三峯 鄭道傳의 다음 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삼가 교서를 읽건대, ‘민폐가 제거되지 않고 재용이 부당하게 소비되어서인가? 아랫사람의 사정이 위에 미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피지지 못해서인가? 뛰어난 재주로써 등용되지 않은 자 누구이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내치지 못한 자 누구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듣건대, ‘三司 會計에서 佛神에 관한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하니 재용을 망령되게 허비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쉰는 예부터 분변하기가 어렵습니다. 佛徒들은 이르기를, ‘이는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는 나라가 富할 수 있으며, 백성이 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된 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 財力을 다하여 부처에게 아첨하여 섬깁니다. (中略)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道場이 궁궐보다 높았고 法席을 절에 상설했으며, 道殿의 기도가 무시로 있었고 巫堂의 제사가 번거롭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이것을 좋은 일로 여기고 실상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이며, 이것이 나라를 富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고 실상은 나라가 메마르게 되는 것을 몰라서이며, 이것이 백성의 수명을 오래 살게 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백성이 궁곤해짐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中略) 이것은 오히려 다른 세대의 일이라 하겠습니까만, 공민왕[玄陵]께서도 불교를 숭상하여 친히 중들에게 弟子의 예를 행하셔서 궁중의 百高座와 演福寺의 文殊會 등이 없는 해가 없었으며, 雲菴의 단청[金碧]은 산골을 비추고 影殿의 기둥은 하늘에 솟구쳐서 재력이 다하고 원망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아랑곳없이 부처를 섬겼으니 가히 지극하다고 이를 만한데, 끝내는 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밝은 前鑑이 아니겠습니까?²⁴⁾

이는 정도전의 「上恭讓王疏」의 일부분이다. 恭讓王은 신료들에게 求言 教書²⁵⁾를 내린 바 있는데, 時政의 得失이나 민간의 폐해를 陳言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정도전은 공양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의 주된 뼈子は ‘불교 폐단의 실상’을 낱낱이 고하는 것이었다. 삼봉은 전대 공민왕의 숭불 정책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일었던 전례를 들어 佛事に 공력을 들이는 공양왕에게 경계하고 삼가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는 삼봉이 「佛氏雜辨」을 짓게 된 근본적인 연유이기도 하다. 추재가 「고려궁사」를 통해 묘사한 연등회와 사찰의 화려함, 법회에 임하는 군주의 모습, 俗人과 진배없는 승려의 모습은 고려 궁실의 외면적 풍경을 넘어서 고려조의 社會相을 담고 있다 하겠다.

2. 高麗 宦官의 모습

「고려궁사」에는 고려조의 환관을 언급한 시가 두 수 전한다. 환관은 왕의 최측근이자 왕의 총애를 얻으면 궁궐 안에서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으므로 추재의 宮詞에서도 소재로 다룬 듯하다. 다음은 직·간접적으로 환관들을 그려낸 시들이다.

24) 鄭道傳, 『三峯集』 卷3, 「上恭讓王疏」, “……伏讀教書曰, 民弊未除而財用妄費歟, 下情未達而冤抑未伸歟. 茂異之才未舉者, 誰歟. 讒佞之徒未斥者, 誰歟. 臣聞三司會計, 佛神之用居多焉. 財用之妄費者, 莫斯若也. 然佛神之害, 自古難辨也, 爲其徒者曰, 此好事也, 善事也, 歸我者國可富也, 民可壽也, 爲人君者聞是說而樂之. 殫其財力, 諛事佛神 …… 殿下卽位以來, 道場高峙於宮禁, 法席常設於佛宇, 道殿之醮無時, 巫堂之祀煩瀆, 此殿下以爲善事而不知其實非善事. …… 此猶異代也. 玄陵崇尚佛教, 親執弟子之禮於髡禿之人, 宮中之百高座, 演福之文殊會, 無歲無之, 雲菴之金碧, 輝映山谷, 影殿之棟宇. 聳于霄漢, 財殫力竭(力竭舊本作竭力), 怨讟竝興, 而皆不恤, 事佛可謂至矣. 卒不獲福, 豈非明鑑乎……”

25) 이 교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실려 있다.

[其九]

繡障香塵十里遙 비단 장막 치고 향기는 십리까지 뻗었는데
 看花時出橐駝橋 꽃 보러 때때로 낙타교로 나오네
 須臾幄次留中使 잠시 幄次에 머무른 내시는
 偷得金絲齒步搖 금실로 만든 케보요를 몰래 얻는다네

[其十]

商船蟻集後西江 상선은 후서강으로 개미처럼 모여들고
 寶石珊瑚擡不扛 보석 산호는 들 수 없을 정도라네
 手劈印標呼白望 손으로 쪼개고 도장을 찍으며 白望이라 부르고
 敗裳殘帛滿篷窓 해친 치마, 남은 천들이 선창을 가득 채우네

[其九]는 妃嬪이 환관과 동반하여 꽃구경 차 낙타교에 행차한 모습을 그렸으며, [其十]은 고려조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예성강 지역을 묘사하며, 宮市를 주관했던 환관의 모습을 함께 그려내었다.

[其九]의 시에서 낙타교[橐駝橋]²⁶⁾에 행차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繡障’과 ‘幄次’라는 시어로써 주체가 궁중 妃嬪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약차는 임금 거동할 때 임시로 장막을 둘러친 곳이다. 3, 4구에 비로소 中使, 즉 환관이 등장하는데, 4구의 “偷得金絲齒步搖”에서는 비빈과 환관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음이 짐작된다. 齒步搖는 부인의 머리카락에 걸면 흔들리는 장신구이다. 中使가 몰래 妃嬪의 장신구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妃嬪을 포함한 궁 안의 여인들은 모두 군주의 寵愛를 얻고자 할 것이다. 고려의 환관들은 여러 近侍들과 함께 왕의 행차에 동행하는가 하면 왕명의 초안 작성, 유교 경전의 강

26) 『新增東國輿地勝覽』開城府를 참조하여 보면, 낙타교는 보정문에 안에 있는 다리로서 고려 태조조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어 낙타 50필을 보냈는데, 왕이, “거란이 일찍이 渤海와 좋게 지내다가 하루 아침에 멸망시켰으니 너 무도 무도하다. 멀리 交隣을 맺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 사신 30명을 섬으로 귀양 보내며 낙타를 다리 아래 매두어 모두 굶겨 죽였으므로 인하여 낙타교라 이름 하였다고 전해진다.

의, 왕실재정 관리의 전반을 담당했으며 때로는 국왕을 대신하여 궐 밖의 민정을 살피기도 하였다 한다.²⁷⁾ 또한 『고려사』 宦者 열전에도 “…때번 그 자들의 세력에 의뢰했으므로, 충렬왕 때에 이미 군으로 봉한 자가 있었고 또 충선왕이 오랫동안 원나라에 체류하면서 자주 천자와 황후, 그리고 황태자가 거처하는 궁전에 출입했으므로 그 자들과 친근해졌으며 또 그 자들의 청도 많았다. …[…每有奏請必賴其力, 故忠烈之世, 已有封君者, 忠宣久留于元, 數出入三宮, 此輩因與相狎, 多有請謁…]”고 하였으니, 妃嬪들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거처야할 관문이 환관이었음은 不問可知거니와 추재의 시에서처럼 청탁에 상응하는 진귀한 보물들이 이들 사이에 오간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侍從하였던 이들이 환관이었던 만큼 그들의 言事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금의 역사서에서 頻出했던 바이다. 고려에도 이러한 이들이 존재한다. 『고려사』의 宦者 列傳을 참조하여보면 대략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충렬왕 대의 환관이었던 崔世延²⁸⁾이 그러했고 충혜왕 대의 환관 方臣祐²⁹⁾, 충정왕 대의 高龍普³⁰⁾ 등 역시 왕의 총애를 업고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다.

한편 [其十]의 시에서는 1, 2구에서 변화한 고려의 皇都인 개경을 묘사하였고, 3, 4구에서는 宮市를 관리하며 ‘白望’이라 칭해지던 환관의 행태 또한 언급된다. 시의 배경이 되는 곳은 後西江이다. 후서강은 곧 禮成江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조하여 보면, 예성강은 開城府의 서쪽 30리에 위치한 곳으로 그 지명의 유래가 고려에서 宋에 조회할 때 모두 이곳에서 배를 띄우기 때문에 ‘禮成’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後西江’이란 예성강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에 관련하여서 茶山 丁若鏞은 “예성강은 松京의 서쪽 30리, 白川의 동쪽 25리에 위치해 있으며 後西江

27) 박상진,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 가람기획, 2005, p.21. 참조.

28) 『高麗史』 卷122, 「列傳」 35 崔世延 참조.

29) 『高麗史』 卷122, 「列傳」 35 方臣祐 참조.

30) 『高麗史』 卷122, 「列傳」 35 高龍普 참조.

이라고도 한다.”라 하였다.³¹⁾ 예성강 하구는 고려 최고의 무역항인 碧瀾渡가 있었다. 벽란도는 송나라의 사신이나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아랍의 상인들도 내왕하던 해상관문이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추재는 이 시의 1, 2구에서 예성강으로 모여드는 많은 商船의 모습을 ‘蟻集’이라 하여 그 변화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보석과 산호 등의 진귀한 보배가 들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외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 4구의 주된 시어는 ‘白望’인데, ‘白望’은 원래 唐代 宮市를 주관하던 환관으로 市塵에 파견되어 采辦하던 인물이다. 그들은 宮市에서 좌우로 살펴보다가 民物을 거저 취하여 ‘白望’이라 칭해졌다고 한다. 宮市는 宮苑 안에 세운 시전을 이르는 바, 당나라 中宗 때 도입된 제도로서 唐代에는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고 한다. 추재는 먼저, 물려드는 商船과 교역하던 진귀한 물품 등을 제시하여 고려의 皇都였던 개경의 변화한 모습을 그려낸 다음 3, 4구는 화려한 궁시의 또 다른 면을 백망을 통해 부각시킨 것이다. 唐代의 환관들은 궁시라는 기관을 만들어 환관들에게 태감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궁 밖으로 내보내어 궁중에서 소비하는 물건들을 사오게 하였는데 시전에서 파는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으로 물건을 강제로 사오게 했다.³²⁾ 고려조의 환관들 또한 예종 때부터 宮中·內帑의 출납에 관여 하였고, 의종 대와 충렬왕 대에 이르러서는 궁중 私藏庫의 실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추재가 쓴 ‘白望’이라는 시어는 환관의 경제적 기득권을 내포하고 있다.

추재가 [其九]·[其十]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妃嬪의 꽃구경이나 예성강 하구의 변화한 모습뿐이 아니다. 궁실 소재의 대표격인 宦官을 등장시켜 화려한 궁실 이면의 모습 또한 조명하려 했음을

31)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6集 卷8, 「大東水經」, “…禮成江, 在松京西三十里, 白川東二十五里, 亦名後西江…”

32) 『新唐書』, 卷158 「列傳」 83, “…是時宦者主宮市, 置數十百人, 閱物塵左謂之白望, 無詔文驗嚴但稱宮市則莫敢誰何大率與直十不償一”

알 수 있다.

3. 君主의 遊戲와 宮中 演戲

「고려궁사」에는 君主의 起居와 관련한 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추제는 군주가 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살피거나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노래하기 보다는 사냥이나 궁중 여인들 (혹은 남성)과의 性的 유희, 연회를 베푸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다. 그야말로 세간에서 禁忌하는 궁중의 雜事를 기록한 것이다.

[其十三]

桃華馬 ³³⁾ 上唱盧令	桃華馬 위에서 盧令을 부르고
錦籠香腰掛曉星	비단 전동 아름다운 요대에 새벽 별이 걸려있다
驕雉不愁藏淺草	驕雉가 얇은 풀에 숨는 것 근심하지 않으니
關西初貢海東靑	관서에서 처음으로 海東靑을 바쳐서라네

[其十五]

宮外春風笑語傳	궁 밖의 봄바람은 웃음소리 전해오고
宮中楊柳軟於煙	궁중의 버들은 연기보다 한들거리네
倭紅椀子絨絲索	붉은색 발판에 융사 밧줄이요
殿下親推送半僊	전하는 친히 그네를 밀어 보내네

[其二十二]

頭面尙書臥少臯	얼굴이 고운 상서 소고에 누웠는데
君王歲歲噉餘桃	군주는 해마다 남은 복숭아를 먹네
枕成交股鴛鴦被	다리를 엇갈려 원앙 이불 덮고
帶結同心翡翠袍	영원히 변치 말자고 비취포를 입네

[其十三]은 군주의 사냥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며, [其十五]는 군주가

33) 趙秀三, 『珍珠船雜存』, 「高麗宮詞」에는 ‘桃花馬’로 되어있다.

궁궐의 여인들과 鞦韆戲를 하는 모습이다. [其二十二]에서 추제는 독특한 소재를 취하였다. 그는 고려왕의 性的 유희를 묘사하였는데, 이는 미려한 男性과의 연애를 다루어 동성애적 코드를 담아낸다. [其十五]와 같이 기왕의 宮詞에서 가장 많은 소재로 등장했던 여인들과의 유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其十三]의 1구에서 언급된 桃華馬는 名馬이다. 털 중간 중간에 붉은 빛이 섞여 있어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다. 여기서는 군주가 사냥을 할 때 타는 말을 ‘도화마’로 표현한 것이다. 군주는 명마를 타고 사냥개를 앞세워 사냥을 즐기고 있다. 1구의 “盧令”은 『詩經』, 「齊風」의 「盧令」³⁴⁾장으로 사냥개의 방울 소리를 의미한다. “錦箠香腰掛曉星”에서 군주가 새벽에 화려한 차림으로 사냥을 나가는 것을 묘사하였고, 3, 4구에서는 당시 궁중으로 진상되던 ‘해동청’ 즉, 사냥용 매의 이름도 등장한다. 해동청은 진상 품목 중의 하나이다. 고려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해주(海州)와 백령진(白翎鎭) 등에서 산출되어 꿩 사냥에 이용되었으며,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였다 한다.³⁵⁾ 시에서 關西 지방에서 처음으로 해동청을 진상하였다고 나와 있듯이, 『高麗史』 등의 史料에서도 해동청이 왕실에 여러 차례 진상되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³⁶⁾

[其十五]는 왕이 궁중의 여인들과 鞦韆戲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시이다. 시 전체에 걸쳐 마치 遠景에서부터 점점 接寫하는 듯한 기법이 보여지는데, 궁 밖으로 들리는 喜喜樂樂한 웃음소리를 따라 버들이 우거진 궁중으로 들어가 보면 왕이 직접 여인들의 그네를 밀어주는 풍경이 나온다. 3, 4구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궁궐의 그네를 묘사하였다. 檝子는 아마도 그네의 발판을 의미하는 듯하다. 붉은 색 발판에 그네의 줄은 絨絲로 만들어진 화려한 그네이다. 분명 여인들과의 유희를 그리고 있음에도 군주를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4) 『詩經』, 「齊風·盧令」, “盧令令, 其人美且仁.”

3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才物譜」. 참조.

36) 성해응의 「고려궁사」 제9수에서도 海東靑에 관한 언급이 있다.

[其二十二]는 군주가 얼굴이 고운 尙書와 함께 情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시이다. 1구에서 戀情의 대상을 尙書라 지칭한 것과, 2구에서 “噉餘桃”라 한 것은 同性愛的 코드를 암시한다. 즉 “남은 복숭아를 먹는다.”라는 것은 『韓非子』, 「說難」에 수록된 衛靈公과 彌子瑕의 故事를 지칭하는 것이다.³⁷⁾ 이는 ‘分桃’라고도 칭하는데, 『漢書』, 「佞行傳」에 등장하는 董賢과 漢 哀帝의 사랑을 칭하는 ‘斷袖’와 함께 男寵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려조에도 이러한 상황이 더러 있었다. 『高麗史』, 「列傳」³⁸⁾에 실린 庾行簡과 목종의 관계가 그 예이다. 「열전」에는 “유행간은 용모가 미려하여 穆宗의 사랑을 받은 男色[龍陽之寵]의 대상이었다. [行簡姿美, 麗穆宗嬖愛有龍陽之寵]”라 하였다. 추재는 고려조의 궁실에서 있었던 이러한 군주의 性的 遊戲를 비교적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었는데, 군주의 偉業과 治化의 德을 밝히는 기존의 宮詞와는 또 다른 패턴으로 창작에 임했음이 드러난다. 이는 동시대 문인이었던 연경재 성해웅의 「고려궁사」 17수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³⁹⁾, 궁사를 창작함에 있어 그 소재가 高麗朝라는 시대적 軌는 함께 하지만 궁실의 세부적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시각을 달리한다. 아울러 추재가 「고려궁사」를 짓기까지 모티브가 되었던 『靑湖稗史』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법하다.

4. 宮中の 女人들

추재의 「고려궁사」에서도 22수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

37) 『韓非子』, 「說難」, “昔者彌子瑕有寵於衛君 …… 與君遊於果園, 食桃而甘, 不盡, 以其半啗君, 君曰, ‘愛我哉, 忘其口味, 以啗寡人.’ 及彌子瑕色衰愛馳, 得罪於君, 君曰, ‘是固嘗矯駕吾車, 又嘗啗我以餘桃.’ 故彌子瑕之行未變於初也, 而以前之所見賢, 而後獲罪者, 愛憎之變也.”라 한 구절이 있다.

38) 『高麗史』 卷123 「列傳」 嬖行 ‘庾行簡’ 참조.

39) 성해웅의 「고려궁사」 17수에서, 추재의 「고려궁사」와 겹치는 소재들도 더러 있지만 군주를 형상화하는 독특한 방식이나 宦官에 대한 묘사 등은 추재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만, 妃嬪의 愁怨을 다루거나 起居를 묘사한 시, 고려 왕실의 早婚 풍습을 묘사한 시, 宮女들의 유희를 다룬 시들이 있다. 이 시들을 통해 추재는 고려조 궁중 여인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그려내고자 하였다. 군주의 총애를 얻기 위한 爭寵이나, 군주의 관심을 얻지 못한 여인들의 悲怨만을 소재로 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을 전개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其二]

重重珠箔四圍春	겹겹의 주렴 사방이 봄이요
樓上玲絨忽打人	누각 위의 구슬 쟁그렁 사람에게 부딪치네
不是王家嫌早嫁	왕가에서 조흔은 꺼리는 것이 아니니
阿氏脇下有金鱗	아씨는 옆구리에 용 비늘이[金鱗]이 있다네

[其三]

泥金牌子錦衣奴	금칠한 牌子에 비단 옷의 노비
公主樓船下太湖	공주는 다락배[樓船]에서 태호에 내렸네
火浣單裙何足惜	화완포 홀치마가 무엇이 아까우리오
東京城外看浮屠	동경성 밖으로 절을 보고 가는데

[其七]

後庭春雨長莓苔	뒤뜰에 봄비 내려 이끼가 자랐는데
細樂遙聞滿月臺	가느다란 음악소리 멀리 만월대서 들려오네
一對銀燈花外映	한 쌍의 은 등잔 불빛 바깥으로 비치는데
中宮親看鬪鷄迴	중궁은 친히 투계를 보고 돌아오네

[其十八]

甲煎沉香滿地燒	갑전향을 사방에서 사르고
阿監今夕賞元宵	궁녀들은 오늘 저녁 대보름을 완상하네
初頒一石人蓼酒	시작부터 한 섬의 인삼주를 하사하니
院院爭吹綠玉簫	절집마다 綠玉簫를 다투어 분다네

[其二]의 시는 나이 어린 여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려 왕실의 조혼 풍속을 그려내었으며 [其三]은 公主의 佛事 즉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其七]은 후궁의 눈에 비친 中宮의 유희를 통해 간접적으로 후궁의 悲怨을, [其十八]은 정월 대보름 저녁에 宮女들의 놀이를 묘사하였다. 이 가운데 [其七]과 [其十八]은 일반적인 궁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其二]를 통해 고려조 王家의 여인들이 이른 나이에 혼례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여인들의 초혼 연령은 대체적으로 고려 전기에서 후기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⁴⁰⁾ 이 같은 현상은 고려 왕실의 혼례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나보다. 『高麗史』 后妃列傳⁴¹⁾을 참조하여 보면 恭睿太后任氏는 15세의 나이로 혼례를 치른바 있다. 이는 3구에서 언급한 “왕실에서 조혼은 꺼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일례이다. 4구에서 “아씨는 옆구리에 용 비늘이 있다.”라는 말은 그녀가 장차 龍鐘을 잉태할 왕실의 여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고려 태조 왕건이 스스로 龍鐘임을 자처하고 龍鱗을 왕조 대대로 계승해 내린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其三]은 화려한 복장의 하인을 동반한 고려의 公主가 사찰에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고려의 여인들이 신분의 高下에 관계 없이 일상에서 佛事를 행하거나 스스로 수행을 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⁴²⁾ 앞서 군주가 사찰에 거둥하여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 한 시가 소개되었는데, 왕실의 妃嬪들 역시 일상에 젖어 있었으며 사찰에 찾아 發願하는 일이 잦았다. 財力을 다하여 사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군주뿐만이 아니라 公主에게서도 보인다. 2구에서 공주가

40) 권순형, 『고려시대 혼인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에 서는 고려의 혼인연령을 표로 일별하여 놓았다. 필자는 이 도표를 참조하였다.

41) 『高麗史』 卷88, 「列傳」, 恭睿太后任氏.

42) 김영미 외, 『고려 시대의 일상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이층으로 된 樓船을 타고 太湖에 내렸다는 언급은 그 공간적 배경이 中國이라기보다는 궁중의 일을 소재로 하였기에 일종의 美稱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唐詩에서 당대의 제도나 문물을 종종 漢代에 빗댄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4구에서 東京城이라 한 것도 燕京의 地名이 아닌 開京의 근처를 의미한다. 한편, 3구에서는 화완포로 만든 홉치마가 등장한다. 화완포는 西域에서 들어온 것으로 불에 타지 않는 織物이다. 지금의 石綿에 해당하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귀한 교역품으로 여겨졌다. 화완포 홉치마가 아깝지 않다는 말은 사찰에 시주한다는 뜻인 듯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浮屠는 승려, 혹은 사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동경성 밖으로 부도를 보러나간다는 것은 공주가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其三]은 궁중의 妃嬪의 일상에서 佛事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려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其七]과 [其十八]은 전형적인 궁사의 모습을 띄고 있는 작품이다. [其七]은 후궁의 눈에 비친 군주와 중궁의 유희를 묘사함으로써 愁怨을 은근하게 드러내었다. 만월대 즉 고려의 연경궁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細樂遙聞”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듣는 이는 궁궐의 깊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行樂에 참여하지 못하고 후궁은 외롭게 홀로 등잔을 대하고 있는 반면 중궁은 아마도 군주와 함께 친히 鬪鷄를 즐기고 왔을 것이다. [其十八]의 묘사 대상은 阿監이다. 아감은 궁궐의 여관을 지칭하는 말로써 여기서는 궁녀 정도로 보면 옳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궁녀들이 모여 대보름 밤을 즐기는 모습이 형상화되어있다. 고려조에는 元宵節의 행사 역시 불교적 행사로 취급되었으므로 1구에서 甲煎香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표현한 것이다. 이날에는 고려조의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는 人蔘酒가 하사되고, 사찰마다 악곡을 연주하며 즐긴다. 이 작품을 통해 궁녀들의 유희와 더불어 불교와 결합된 고려조 ‘세시풍속’의 한 단면 또한 엿볼 수 있다.

5. 君主의 탄생과 죽음

추재의 「고려궁사」는 군주의 탄생 설화와 장례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는 여타의 宮詞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이다. 보통 궁사에서는 묘사의 대상 인물이 대체로 군주와 궁중의 여인들, 즉 妃嬪 혹은 궁녀들이다. 이들의 起居나 情緒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나 왕후를 지칭하는지 알기는 참으로 어렵다. 즉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궁사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성의 결여는 궁중사의 內密함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부재함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것이며⁴³⁾, 거개가 여인의 愁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필자와 독자사이의 정서적 교감 외에는 별다른 특기사항이 없어서 일수도 있다. 추재는 「고려궁사」에서 세간에 ‘주름살 임금[褊主]’이라 알려져 있는 고려 혜종의 탄생에 관해 자세히 묘사하였다.⁴⁴⁾ 또한 군주의 위업이나 행락과 같은 보편적 소재가 아닌, 군주의 장례 모습을 묘사하여 取材 방식의 독특함을 드러내었다.

〔其四〕

紅帕雙包御製文 붉은 휘장 雙包에 어제문이요
燕襍熊夢祝紛紛 연매⁴⁵⁾와 웅몽⁴⁶⁾으로 축하가 분분하다

- 43) 이 점에 대해서는 이희목 교수의 「이조 중기 당시풍 시인들의 궁사 연구」, 『한문교육연구』 1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여기서는 궁중사를 소재로 한 궁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를 내밀한 궁중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 부재로 들었다.
- 44) 성해옹의 「고려궁사」 17수에서도 고려 혜종의 탄생에 관한 일화를 시로써 묘사하였으나, 『고려사』를 근거로 하여 추재의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일화의 사실적 묘사와 형상화는 추재의 작품이 훨씬 세밀하다 할 수 있다.
- 45) 燕襍는 제비가 날아오는 따뜻한 봄철에 제왕의 후계자를 얻기 위해 제사드리는 것을 말한다.
- 46) 남아를 낳을 태몽(胎夢)이다. 꿈은 힘이 세고 陽에 속하는 짐승이므로 남자

春來吸盡龍精水 봄이 와 용의 精水를 다 마시니
兒頰分明印席紋 아이의 뺨에 자리[席] 무늬 분명하구나

[其二十]

玉匣銀魚杏葬還 옥갑, 銀魚로 멀리 장례 치르고 돌아오니
滿宮珠翠總無顏 온 궁에 구슬과 비취는 모두 빛을 잃었네
黃昏明月何人見 황혼에 달 밝은데 누가 보이는가
躑躅花開進鳳山 철쭉꽃이 진봉산에 만개했다네

[其四]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의 惠宗과 관련된 시이다. 惠宗의 탄생 설화는 매우奇異한데, 이는 『고려사』의 「世家」에서가 아닌 后妃列傳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惠宗의 모친은 莊和王后 吳氏였는데 이와 관련한 일화는 다음과 같다.

莊和王后 吳氏는 羅州人이니 祖는 富佗이고 父는 多憐君이다. 代代로 羅州의 木浦에 살았는데 多憐君이 沙干 連位의 딸 德交에게 장가들어 后를 낳았다. 后가 일찍이 꿈에 浦의 龍이 와서 腹中에 들어가므로 놀라 깨어 父母에게 말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는데 얼마 후에 太祖가 水軍將軍으로서 羅州에 出鎮하여 木浦에 배를 머무르고 川上을 바라보니 五色의 雲氣가 있는지라 가서 본즉 后가 빨래하고 있었다. 太祖가 불러 이를 侍寢케 하였으나[幸] 微賤한 身分이므로 姪娠되기를 願치 않아 寢席에 宣[射精]하였는데 后가 곧 이를 及入하여 드디어 姪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惠宗이 되었다. 惠宗은 顏面에 席紋이 있었으므로 世人이 禰主[주름진 입금]라 하였다. 항상 물을 寢席에 뿌리고 또 큰 병에 물을 담아 팔꿈치 씻기를 싫어하지 않으니 참으로 龍子라 하겠다.⁴⁷⁾

惠宗과 관련한 일화는 후비열전에 실려 있어⁴⁸⁾ [其四]를 후비를 소재

의 비유로 쓰인다.

47) 『高麗史』 卷88, 「列傳1·后妃」, “莊和王后吳氏羅州人祖富佗父多憐君世家州之木浦. 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生后. 后嘗夢浦龍來入腹中驚覺以語父母共奇之. 未幾太祖以水軍將軍出鎮羅州泊舟木浦望見川上有五色雲氣至則后浣布太祖召幸之以側微不欲有娠宣于寢席后卽吸之遂有娠生子是爲惠宗. 面有席紋世謂之禰主. 常以水灌寢席又以大瓶貯水洗臂不厭眞龍子也.”

로 한 宮詞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4구에서 묘사한 인물이 禱主라 칭해졌던 혜종임은 周知의 사실이므로 본고에서는 대상의 주체를 莊和王后 吳氏보다 혜종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분석하는 것이다. 1, 2구에서는 장화왕후가 龍鐘을 잉태하고 왕실에서 축하를 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3구에서는 시간을 遡及하여 태조와 장화왕후가 합환의 정을 나눈 후에, 장화왕후가 은밀하게 龍鐘의 잉태를 바라는 마음과 과정을 담아내었다. 4구에서는 군주의 탄생을 묘사하였다. 혜종의 顏面에 돛자리에 배긴 자국처럼 여러 겹의 주름이 저있던 이유를 열전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으며, 3구의 龍井水를 마신다는 것도 이를 통해 詳考할 수 있다. 혜종 탄생의 고사를 다루면서 추재는 태조와 장화왕후의 일종의 ‘野습의 결실’과도 같은 소재를 취했는데, 이는 기존 궁사의 형태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其二十]는 고려조 궁실의 장례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고려조의 사료가 풍부하지 않으므로, 궁실의 장례문화 또한 고증할 수 있는 길이 매우 드물다. 玉匣은 화려한 관을 의미하며 銀魚 역시 고관이 차던 符節이었다. 이 구절만으로는 장례의 대상이 군주를 지칭하는 지는 확실치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구절에서 “滿宮珠翠總無顏”이라 하여 온 궁실이 ‘빛’을 잃었다고 한 것과 3구에서 “黃昏明月何人見”라 하여 황혼과 밝은 달을 감상할 사람이 이제는 여기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亡者가 군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구에서는 망자에 대한 슬픔과 적막함을 철쭉꽃이 만발한 진봉산과 대조시켜 더욱더 부각시킨다. 진봉산은 개성부의 동남쪽에 위치한 산인데, 안팎으로 두견화가 많이 피므로 세간에 ‘進鳳山 躑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4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羅州牧의 興龍寺 부분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다.

V. 맺음말

추재 조수삼의 「고려공사」는 그의 작품세계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조시대에 지어진 공사들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 이는 그의 紀俗에 대한 욕구와 기록 정신이 결합된 산물이라 이를 수 있다.

宮詞의 素材 여하를 차치하고, 그 의미를 논함에 있어 공사가 족히 한 시대의 ‘詩史’에 대비할 만 하다는 석주의 언급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허균의 「宮詞」 도입부에서 “석주는 말하기를 ‘王盟이나 王朝를 논할 것 없이 스스로 奇逸하고 주려하고 우유하고 한창하며 또 궁중 고실을 차례로 기리듯이 다 말했으니 족히 한 시대의 시사에 대비할 만하다.’”⁴⁹⁾라 하였다. 이는 단지 허균의 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왕의 공사에 대한 논의에서 공사의 구체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면, 추재의 「고려공사」는 고려조의 제도와 문물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소재들로서 비교적 구체성을 띤 宮詞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 공사의 자료 개관이나 작품의 경향성은 학계에서 이미 연구가 되어온 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공사 작품의 개별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 판단된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조선조 공사의 특징적 면모를 진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반대로 각각의 작품을 정치하게 분석·연구하여 전체적 흐름을 꿰는 것 역시 가치 있는 작업 이리라 여겨진다. 또한 동일한 소재의 공사류를 비교 대조하거나, 작가 계층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들의 공사 작품들을 비교 대조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 논고 역시 많은 한계를 지니는

49) 許筠, 『惺所覆韻稿』 卷2, 「공사」, “石洲云, 毋論王孟, 王趙, 自是奇逸適麗, 優游閑暢, 且悉宮中故實如指次, 足備一代詩史…”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추재의 「고려궁사」와 동시대 문인들, 예를 들면 연경재의 「고려궁사」를 면밀히 대조·분석하는 작업은 향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參考 文獻>

- 金宗瑞 등, 『高麗史節要』
金宗瑞·鄭麟趾 등, 『高麗史』
徐 兢, 『高麗圖經』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 274, 한국고전번역원.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 5, 한국고전번역원.
趙秀三, 『經畹叢集』, 동국대학교 소장본.
——, 『珍珠船雜存』, 연세대학교 소장본.
——, 『秋齋詩稿』, 규장각 필사본.
許 筠, 『惺所覆瓿稿』, 『韓國文集叢刊』 74,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세시기』 I·II, 국립중앙박물관, 2005.
권순형, 『고려시대 혼인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김건곤 외, 『고려시대의 문인과 승려』, 파미르, 2005.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수용 연구』, 보고서, 2005.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작과비평사, 2008.
김영미 외, 『고려 시대의 일상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김충렬, 『고려유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4.
박상진,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 가람기획, 2005.
박영규, 『환관과 궁녀』, 김영사, 2004.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이희목, 「이조전기 관각문인들의 궁사 연구」, 『대동문화연구』 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

- 이희목, 「이조중기 당시풍 시인들의 궁사 연구」, 『한문교육연구』 15호, 한국
한문교육학회, 2000.
- , 「세시풍요 연구-궁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35, 성균관대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拙稿, 「추재 조수삼의 외이죽지사 소고」, 『민족문화사연구』 36집, 민족문학
사학회, 2008.
- , 「추재의 기속에 대한 관심과 기록」, 『반교어문연구』 24집, 반교어문
학회, 2008.
- ,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하일식 편,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혜안, 2007.
-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2002.
-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6.
- , 『고려사회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81.
- 劉潞 選註, 『淸宮詞選』, 북경 자금성출판사, 1985.

Abstract

*An Essay on <Palace-poem of Koryo> of Chujae Cho, Su-sam / Kim Young Jook**

Chujae Cho Susam, an eminent poet in the late Chosun dynasty who went to China six times and wrote his every travel in the form of poem, was very interested in folklore and wrote some poems of times and seasons of the year and also had bamboo-branch poems. 'Palace-poem of Koryo' have a distinct style reflecting his dexterity of poems of times and seasons of the year. Nevertheless, this is not noticed yet.

'Palace-poem of Koryo' consists of twenty-two poems with a little epilogue. According to the little epilogue, Chujae had read Chungho Paesa (Miscellaneous History of Blue Lake) and written some poems in the form of bamboo-branch poems. The book of Chungho Paesa (Miscellaneous History of Blue Lake) has not yet known to anyone but we could estimate its character by reading 'Palace-poem of Koryo'. Chungho Paesa (Miscellaneous History of Blue Lake) would be a kind of unofficial history or historical episodes of Koryo dynasty. 'Palace-poem of Koryo' would better be studi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Palace-poem of Chosun dynasty. My way of reading this poems is different from it. I am aiming to lay 'Palace-poem of Koryo' on the context of whole works of Chujae, and my method, I wish, leads us to understand its own value.

In 'Palace-poem of Koryo' were written various things in the palace. Compared to the absolute quantity of historical data of Chosun dynasty, those of Koryo dynasty is scarce, and first of all, true value of 'Palace-poem of Koryo' is to give us some historical data. Most of existent Palace-poems before Chujae were created with positive attitude and depicted the bright side of palace affairs,

* Lecturer of Sungkyunkwan Univ. / wenxue@hanmail.net

whereas ‘Palace-poem of Koryo’ is dealing with other side of palace such as corruption of Buddhism, real world of eunuch and private life of king. This approach to the materials helped us feel poet’s individuality.

His some writings include Records of the weird, Bamboo-branch poems of new year’s fill moon day, and Poems of times and seasons of the year all based on the folklore, and these works inherits us new scene of cultural history. ‘Palace-poem of Koryo’ is on the same line of those works: it would be a significant data to let readers know palace affairs and moreover social lives of Koryo dynasty.

【Key words】 Palace-poem, palace affairs, poems of times and seasons of the year, bamboo-branch poems, cultural history

투고일 : 5월 8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